

엔터테이너

Entertainment

정용화·박신혜 호흡

MBC '페스티벌' 출연

그룹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와 배우 박신혜가 MBC의 새 수목드라마 '페스티벌'(가제)에 출연한다.

9일 제작사에 따르면 '페스티벌'은 '폴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을 연출한 표민수 PD의 신작으로, 예술대학 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담아낼 예정이다.

정용화는 '꽃미남' 밴드 보컬로 여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실용음악과 학생 이신 역을 맡았고 박신혜는 판소리 명창 집안에서 자란 가야금 신동 국악과 이규원을 연기한다. '페스티벌'은 6월 22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4년만의 복귀작이라 캐릭터 숙고

상위 1%의 삶 사업했던 경험 많은 도움

이유있는 악역이니 너무 미워 마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카리스마 작렬'이다. 이제 갓 2회가 방송됐을 뿐이지만 방송 직후 인터넷에는 그의 연기에 대한 감탄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김영애(60)가 지난 2일 시작한 MBC 수목극 '로열패밀리'를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대기업 JK그룹의 공순호 회장.

“제가 놀 수 있는 마당이 주어졌다는 게 기쁘네요. 허영일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TV로 돌아오는 데 근사한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광범한 엄마 역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렸죠. 이리다 일을 다 놓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렸더니 좋은 역을 만나게 됐네요.”

그의 드라마 출연은 2006년 KBS 2TV '황진이' 이후 4년 만이다. '황진이'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행수기녀 백무를 통해 명연기를 선사했던 그는 그러나 2009년 영화 '애자'를 찍은 것 외에는 그 전후로 내리 '휴업'했다.

“‘황진이’ 이후 센 역만 들어와서 다 거절했어요. 센 역도 센

역 나름인데 작품이 다 '막장'이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계속 거절했죠. '아테나'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중이 적었지만 역할이 새로워 말았는데 오랜만에 연기에 발동을 거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1~3회에 제 분량이 엄청 많고 워낙 강한 캐릭터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네요. 첫회 찍고 탈진했어요.”

'로열패밀리'는 JK그룹 2세와 결혼했으나 '평민'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살던 인숙(염정아 분)이 온갖 풍파 끝에 재벌 총수에 오르니까까지의 이야기다.

“악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 회장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캐릭터에 감정이입이 돼서 인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그 많은 걸 가졌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가 생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실제로는 로열 패밀리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 표현방식 등에 대해 들어 참고하고 있어요. 특징인을 모델로 삼지는 않았습니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김영애 자신이 사업을 했던 것도 연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황도팩 사업으로 한 때 매출 1천5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드라마는 그런 공 회장이 자신이 무시하고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며느리 인숙으로 인해 파멸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김영애는 공 회장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할까.

“살아온 경험을 돌아보면 20대 때 사고 쳐서 일을 쉴 때 끼니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또 첫 번째 이혼을 할 때는 빚만 2억 원이 있었어요. 반면 사업이 잘됐을 때는 경제적 여유를 누렸어요. 두 극단을 경험하면서 돈은 편리하지만 그것으로 행복은 살 수 없음을 알았어요.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도 새삼 느꼈고요. 공 회장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무너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의 그는 인정 많고 의리 있으며, 개구쟁이 기질이 있다. 그



려나 스스로에게 혹독한 완벽주의자이자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점은 일견 공 회장과 닮았다.

“편안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일이든 뭐든. 온갖 갈등들이 내 속에서 끓고 있어요. 그러다 연기를 통해 표출되죠. 순간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늘 가슴이 아파요. 감정의 상태가 광범하지는 않은 거죠. ‘황진이’의 백무를 연기하며 그 여자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에 질려 ‘나 이 여자 너무 싫어’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 중 엄마랑 가장 비슷해’라고 해서 충격받았어요. 몰랐지만 그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느꼈죠. 다른 것에는 안 그러는데 일에 있어서는 제가 완벽을 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1971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사업에 매진하려 잠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연기를 한 하자 마음에 병이 들어 '황진이'로 복귀한 그다.

“판 데 욕심은 없어요. 오로지 배우로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아니라 좋은 배우가 되고 싶고, ‘저건 김영애 밖에 할 수 없다’는 말 듣고 싶어요. 사업도 해봤지만 사업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1이려면 연기를 통해 얻는 것은 10이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연기는 제게 산소이고 공기이고 치료제입니다.”

/연합뉴스

MBC '로열 패밀리' 김영애

냉혈 카리스마 새 수목극 캐릭터 맞불 철부지 아가씨

SBS '49일' 이요원

“시대물하다 1인2역 판타지 어려워

영혼 바뀌는 설정이지만 ‘시크릿 가든’과 달라

‘주원 앞이’ 대신 ‘이경 앞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몸에 빙의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몸을 빌리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그레이스 칼리?”라며 웃었다.

'49일'에서 지현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혈육 이외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세 명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 극중 지현이 아닌 인간 이요원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이요원은 “저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가족 말고 세 명은 될 것 같지만, 과연 그들의 눈물이 순도 100%의 투명한 눈물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49일'은 오는 16일부터 방송된다. /연합뉴스



‘선덕여왕’ 이요원이 이번에는 ‘판타지의 여왕’에 도전한다.

이요원은 SBS TV 새 수목드라마 '49일'에서 연인과 사별한 후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철부지 아가씨 '지현(남규리)'의 영혼에 몸을 내주는 여주인공 송이경 역을 맡았다. 이요원은 '49일' 제작발표회에서 “시대극을 찍을 때보다 훨씬 어려웠다”며 1인 2역 연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토로했다.

그는 “시대물 같은 경우 특별한 의상을 입고 현장에 가면 자도 모르게 그 사람(주인공)처럼 되는데 이번에는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은 곳에서 촬영하다 보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더 힘들었다”면서 “특히 지현은 굉장히 아이 같고, 성숙하지 못한 27세의 여자다. 이경과 많이 달라서 캐릭터를 끌어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와일드하고 남성적인 면이 많은데 지현이가 사랑스러운 역할이어서 규리 양의 여성스러운 면을 따라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뀐다는 설정은 현빈·하지원 주연의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도 사용됐던 것이다. '주원 앞이' '라임 앞이'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술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시크릿 가든'과 '49일'의 차이점은 뭘까.

이요원은 “‘시크릿 가든’의 경우 본인들이 아는 상황에서 몸이 바뀌지만 우리 드라마의 경우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지현이 제 몸을 쓴다는 설정이다”라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저승으로 가기 직전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쓰는 상황이기에 ‘시크릿 가든’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벅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우나·헬스·에어로빅·요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Multi-Plex Fitness System’으로 잃었던 ‘당신의 젊음’을 되찾으세요!

| 회원가입 · 상담문의 | 062-383-7272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4 |
(내비게이션에서 '스타벅스 사우나' 주소를 검색하세요)